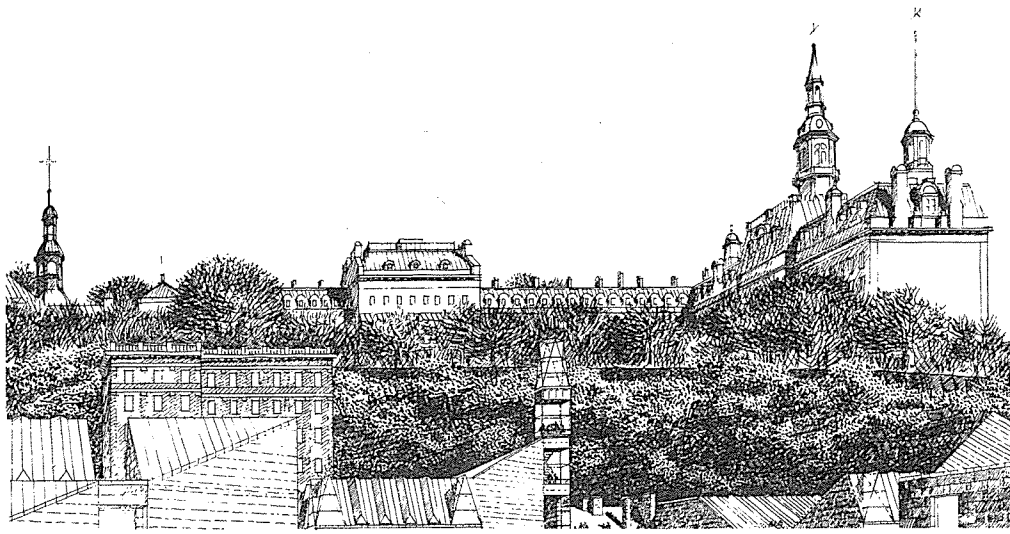


'84

月					
金	土				
5	6	7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31					



새해에 가는 기대

(원고도착순)

“刻苦心慮의
力作을 기대하며...”



張 起 仁 / 삼성건축

1984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建築士協會와 회원들에게 새로운 기술 향상과 참신하고 효율적인 사회 봉사의 창작 활동이 高潮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해에 다하지 못한 일들을 올해는 성공리에 소망대로 거두고, 보다 알찬 장래를 위하여 헌신하여 先進國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建築界, 특히 建築設計를 담당하는 建築士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선진하는 기술의 연마와 웅비하는 예술의 창조, 국가사회와 더불어 인류의 자유평화, 豐饒高尚의 덕을 쌓아야 할 것이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아를 위함 보다는 우리 겨레, 전인류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建築士協會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중 몇가지를 들면, 회원 작품의 質이 무성의 하다거나, 소홀하다는 말로 평가되는 것과 영리를 위한 過多競爭으로 疎忽性이 흔하다는 것과 창작이라기 보다 安易한 類似模倣性을 타파하지 못하고 力作

의 刻苦心慮가 없이 처리되는 사례들이다.

설계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이중직 또는 떼뭇치 못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듣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 같다.

建築士는 그 업무에 성실해야 한다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리에 앞서 지녀야 할 직책이며 사명감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회원의 平均年輪이 높아 진다고 한다.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은 복된 일 이기는 하지만 老後策을 강구하여 老後의 영예로운 후퇴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 같다. 澆刺한 建築士라 할지라도 年輪이 쌓이면 老鈍하여 지기 때문이다.

86·88 국제대회를 이 땅에서 치르게 되니 84년은 우리 建築人 모두에게 크나 큰 과업이 주어진 해이다. 漸新한 예술성과 도약하는 국제성 그리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建築으로서, 공학과 경제의 선진을 위하여 다같이 힘써야 할 것이다. 겨레를 위하는 마음이 샘솟는 이곳에 능력과 용기 그리고 신념이 가득한 우리에게는 오직 성공과 영광이 다가 올 뿐이다. <*

無題



金重業 / 김중업건축연구소

해가 바뀐다고 새로울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하다.

시간의 흐름이란 영점으로 달리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어제 보담 오늘이 더욱 소중한, 내일이 되풀이 해 온 관습이기에 새해에 글을 적어 본다는 것은 약간 낯이 간지러우나 몇자 적어 보련다.

60고개를 넘었다고 노장이라고 부르는데는 딱 질색이다. 나이 들면서 모르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하도 많으니 망녕이라고 누가 환들 나는 이제부터 더욱 젊어 지련다.

젊음만이 꿈을, 그리고 알뜰한 시를 읊을 수 있기에 나는 방금 20대라고 자부한다.

건축을 제작하는 것은 정신적인 작업이기에 꿈이 크고 시심이 깊이 담긴 공명이 절실히 요청된다. 어찌 꿈없이 이 각박한 현실 속에 함몰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옛 선비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했다.

살다보니 꼭 맞는 말이다. 매만지면 매만질수록 죄만 짓게 마련이어서 어찌까지의 일들이 부끄러워만 진다.

갈 때에 어떤 영화처럼 싹 싹고 갈수만 있음 속이 편할텐데 자기 죽음까지 예측할 수 없으니 답답하긴 매

일반이다. 그러다가도 이 미친놈에게 거금을 걸어 미친 짓을 요청해 오면 미친 인생 또한 그리 쉬 버릴 것도 아니라는 자위를 하고 만의하나의 확률도 없을 반짝일 작품을 꼭 하나 빚고 가리라는 천치 같은 욕망만 부풀게 된다.

하기야 한국의 현주소가 비문화적인데다 부정이 팽배하고 일확 천금에 들떠 있는 판이니 건축인들 어디 양식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그래도 나만이라도 분수에 맞는 작업을 하다가리라는 용고집으로 살다보니 이제 제법 고독을 가까운 벗으로 삼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된 성도 싶다. 누구도 탓하지 말고 놀림에도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필 가루를 마시며 그래도 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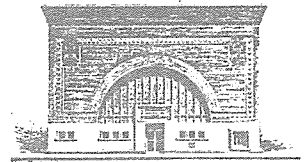
즐겁게 살자.

내가 부러운 것이 있다면 연필 한번 제대로 놀리지 않고도 사업가인 양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천진스러운 이들. 이들이 더욱 건축사라고 자칭 타칭 잘 통하는 터전. 공해 창출에 열을 올리는 단순함이 무척도 부럽다.

그러나 모두 같은 별만을 지니고 살고 있지는 않는 법이어서 고해의 별을 택한 내가 이제 와서 딴 짓을 할 수 있을것 같지도 않다.

자기 분대로 한평생 산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련만 바보스럽게 오래 살다 가겠다.

건축을 고귀한 예술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한 미치광이의 독백이라고나 해 두지. (*)



“建築界의 폭넓은 發展을 빌며”



李丞雨 /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새 희망과 새로운 꿈에 부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80년 중반으로 접어드는 甲子年은 60년을 週期로 하는 첫해로서 새해를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新紀元을 바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建築界에 몸담은 個人 및 團體들이 이제까지 이룩하여 온 成果와 그에 따른 努力으로 새삼 建築界의 活性化를 다짐하는 契機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모두는 現時代

를 明白히 照明하는 建築이란 課業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諸般建築活動과 研究 및 教育的인 次元에서도 各己 보람된 활동을 하였으며 그와 並行하여 時代的인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 展開를 나름대로 착실히 遂行해 왔다고 自負합니다.

그러나 한 分野의 발전만이 全體的인 總和를 이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建築教育界에 계신 분들은 먼 展望을 指向하는 教育理念을 指標삼아 후진을 양성하여 주심으로써 韓國建築界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建築家 및 建築士 여러분은 實務를 最優先의 社會的 職分으로 삼아 發憤努力함으로써 作家 個個人的인 所信을 反映하는 作品을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 항상 간절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期待는 建築을 단지 實務的이고 職能的인 表面上의 意味로서만이 아닌 地域的인 文化發展의 次元으로 새롭게 認知하려는 자세를 갖추은 물론 哲學을 바탕으로 理論을 消化시켜 새로운 技術發展까지도 넘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韓國建築界가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相互 交流의인 次元에서 量과 質을 가림없이 研究· 研磨함

으로써 建築界의 새로운 雰囲気을 造成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建築開에 關係하는 여러분의 積極적인 參與意識의 鼓吹가 중요한 關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 建築士 여러분의 宿願이었던 새 協會會館建立을 새해에 바라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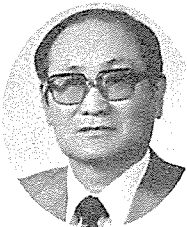
있음은 더할나위없는 우리 모두의 기 쁨이 될 것입니다.

新築會館建立으로 實質的인 側面에 서도 새로운 協會運營이 기대되며 會 員 여러분이 物心兩面으로 協心協力 하는 마음 가짐이 모아지리라 믿습니 다.

어제와 오늘을 基盤으로 2,000年代 를 謳歌하게 될 個人의 力量發揮와 함께 각 團體의 발전을 甲子年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끝으로 建築界에 關係하시는 여러 분의 萬事가 亨通하며 繁榮하고 家內 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



金 根 德 / 대한건축학회 회장

건축은 개성의 산물이라기 보다 그 변하는 시대의 예술성과 과학성을 종합한 사회적 산물인 것이다. 주생활은 도구·에너지·공간의 3요소로 성립되고 있다. 그것은 원시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은 도구의 내용, 에너지의 내용, 공간의 내용이다. 그런데 원시시대에서는 이 3요소가 독립한 요소로써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오늘의 양상은 예민한 시대 감각의 각광을 받아 이 3요소의 조화의 추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으려는 삶의 활동이다. 이 땅의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삶의 조성역할은 우리에게 위임된 성스러운 건축인의 사명이다. 오늘날까지 건축에 체험한 변화를 만족시키던 것은 건축구조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현대기술과 공학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현대건축 계획면에서의 미·기

능·색채조절의 변화성과 건축구조면에서의 구조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을 당시는 건축의 개념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건축이라는 것은 비·바람·눈으로부터의 피난처임을 보여 주는 소박한 표현이었다. 한결음 더 나가서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발전과 경제향상, 욕구 충족, 문화향상 등에 따라 선진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들도 비·바람·눈에서의 피난처라는 단순한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건축적 차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대건축은 안전하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게 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가능성과 필요, 자원의 최적이용, 경제적·생리적·심리적 안위를 위하여 적합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을 마련되게끔 계획·건설·사용·보수·저렴공비·교통·공공·사회성·경제성 등의 상관관계의 합리성이 고조되어야 한다. 오늘날 건축의 생산방식이 바뀌어졌다 해도 인간과 그의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과의 관계는 과거의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환경이 옛날에 사용된 건축재로서는 나무·흙·돌등이 있었는데 기술적 추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재를 얹게하고, 작게하고, 큰 공간, 아름다운 건축을 형성하는데 회구되어 새로운 재료 및 사용법의 개발의 국제적 경쟁시대의 돌입케 된 것이다.

자본력의 선물로써, 또 기술의 소산으로써 고도화되고 고차적인 건축의 설계, 시공행위의 재래관념의 차원을 달리하여 각 분야의 중지의 고도의 종합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에 있어서 인간정착의 과학화·예술화를 위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시스템 어프로우치의 기본적인 자세와 개념이 올바르게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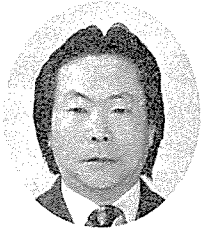
현재 놀랄만큼 세계인구는 40억 이상을 헤아리고 현재의 인구증가율과 식량사정으로 보아서 식량공급은 전 인류생존의 불가능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되듯이 여기에 못지않게 주생활의 문제성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찰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리나라같이 인구팽창·경제소득·식량·문화·심리·환경 등의 합리성과 가치관의 상관관계의 복잡다단한 구조 위에서 볼 때 재래의 건축관은 일대 전환점을 모색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 도래되었으며 그의 사명이 막 중함을 통감하게 된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여 건축인의 보람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참신한 건축계의 새롭고 올바른 전통수립만이 우리 모든 건축인 의 사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흑간에 돈·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여 같은 만남의 장(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건축인 사이에서 나와 너의 양안(兩岸)에 갈등과 비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풍토가 사라져야 밝은 건축계에서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객관화의 시각(視角)을 갖고 「어떻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의 깊은 철학이 깃들 때 위대한 건축인 의 보람있는 삶이 밝아 올 것이며 이것이 건축인 의지의 승리의 표본이 기도 하다.<*>



“大企業 속의
設計組織에 바란다”



李 永 熙 / 희림건축

해외건설 붐의 파고를 타고 국내 대기업 속에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으나 대다수가 설계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아뜨리에」적인 건축연구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기술인력 및 산업 기기를 보유하고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분야별 협력이 다극, 전문화 되어야 함은 물론 거장의 영감적인 스킷치 보다 조직과 협력으로 체계적인 전개에 의한 결과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건축은 혼자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대기업 설계 그룹의 기본 철학이 대기업다운 아량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업은 이윤 추구가 지상의 과제이나 적어도 국내 설계 활동에 있어서는 수주를 위하여 방대한 기업 조직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건축적인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설계 그룹은 조직과 자본이 미흡한 설계 공방에서 하기 어려운 인간 공학에서 부터 사회과학에 이르는 각종 Factor에 있어 「엔지니어링」이 뒷받침한 실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진 건축 기술을 접촉하고 도입하면 자사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루속히 보급할 아량은 없을까.

국내의 건축적인 능력을 조건 없이 과소 평가하고 외국에 의뢰해야만 일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고 경영자가 있다면 그 사고 풍토를 우정 있는 설득으로 수정할 수는 없을까.

그 많은 「달러」라면 연수를 가 배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경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는 집이 반드시 서울에서도 좋은 집이 된다는 논리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自慰에서 벗어나
未來를
생각해야 할 時期”



金 正 湜 / 주·정림건축

은 일을 했지만 잘했다고 自負할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으며 오히려 보기 싫은 建物群이 솟아 올라 조용하던 지방의 田園都市마저 오염되어 가고 있어 닥아오는 큰 行事に 무엇을 보여주고 자랑해야 할지 새삼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수도 서울은 머지않아 우리들 스스로가 살기 싫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말 것이며 외국 관광객에게 조차 매력을 잃어 외면을 당하고 말 것 같다.

신문지상에는 우리의 동료들이 당국으로부터 問責을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실리고 圖書 심의에서는 평면과 입면·단면이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서류를 내미는 배짱, 그런가 하면 官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하여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제대로 받게 되었다면서 자위하는 우리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하나하나 던져버려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우리들. 그러나 84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좌절할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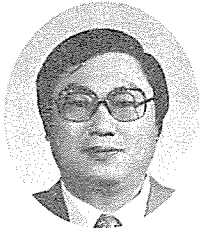
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사가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사회 또는 개인의 막대한 자금을 위탁받아 인간이 살기 편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空間創造를 하되 주위환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개성있는 造形的인 Land Mark를 세우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찾아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이루어지면 영구 건물로 남아 누구의 作品이라는 것이 따라 다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새해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이윤추구로부터 벗어나 평생에 훌륭한 예술작품 하나라도 남기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도면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하여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작품활동에 임한다면 우리나라 建築文化는 눈에 띄게 변모되어 文化國民으로서 자부하게 될 것이며 우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치 않는 이러한 꿈들이 84년에는 꼭 실현되기를 기원해 보는 새해 아침이다.〈*〉

KAL機와 아웅산 참사로 얼룩진 터에 금융부조리까지 겹쳐 씩씩하던 83년은 가고 甲子年의 새아침이 밝아왔다. 지난 해를 돌이켜보며 建築士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

“우리의 姿勢
가다듬어
權威回復에 힘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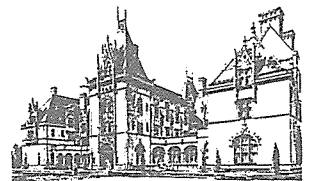
韓 鍾 彦 / 금성건축연구소 · 본회이사

어느 사이 또 한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覺悟와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84년 甲子年을 맞이하면서 유달리 감회가 깊었던 것은 지난 해에 國內外的으로 너무 衝擊的인 事件이 많았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3년의 惡夢을 빨리 씻어버리고 希望의 새해 甲子年에는 보다 알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建築士 會員 여러분과 함께 祈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建築士協會가 誕生한지 올해로 어언 19년, 이제 정말 成年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우리의 할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權利도 뚝뚝히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姿勢를 가다듬어 우리의 權威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法の 擴大 解釋으로 인한 行政指導나 過度한 設計審議 등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서 일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 制度的 矛盾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結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해에는 꼭 우리 建築士 本然의 位置를 지키면서 보다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會員님들과 더불어 보람되고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빌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共感의
鳥瞰圖를 내걸자”



金 榮 洙 / 김영수건축연구소

이제 1984년.

세월이 흘러 간다는 것은 엄연한 숫자의 眞理임에도 數順의 바뀜은 모든 이들의 착함과 아름다움에서 시작되는가 보다.

모두들 새 인간으로 태어난듯 한것 부풀어 새해를 맞는다.

그럴 때마다 나라는 겨레에게 새누

리를 외치고 겨레는 옷깃을 여미고 사랑을 다짐한다.

육십갑자의 마지막 癸亥가 먹어간 모든 액운은 이제 겨레의, 너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사작의 甲子가 가져다 줄 행운만을 웃음으로 맞이 한다.

그러다가 어쩔수 없이 더큰 아픔이 닥친다 해도 인내로 견뎌야 함이 전래의 美德. 어느 누구도 하늘의 攝理인양 순종만 해왔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모든걸 참아야만 하는 宿命的 恨. 이것만은 올해부터라도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켜, 두고 두고 되짚지 않는 叡智를 한번 다해 보자.

누가 恨을 아름다운 예술로 예찬을 아끼지 않았던가?

우리 建築人.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지도적 先進 그룹을 명실공히 自負해야 할 사람들.

바로 우리들만은 恨들로 웅어리진 퇴적더미를 겨레의 앞장에서 「불도자」 질 하는 實踐人이 되어 보자.

앞질러 잘 가는 바다 건너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 잡는데 恨, 恨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이제 건축인이 이에 앞장서는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겨레 앞에 진실로 화합된 建築界를 보여 줄 수 있

는 뭉쳐진 힘이다. 建築士를 비롯한 業者, 專門研究者 및 關係公職者들이 모두들 建築專門人의 矜持와 自負 속에 협동과 보조를 같이 하지 않는한 일시적 참여자인 건축주의 필요 조건은 물론 일반 국민의 충분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한 일.

실(建築人)들의 매듭을 먼저 풀고 하나의 바늘(建築界) 구멍으로 들어가야 좋은 옷감(겨레)을 길고 훌륭한 옷(국가)을 만들 수 있는 과정과 비유해 보직도 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할일은 겨레 앞에 그동안 보여 준 지금까지의 靑写真을 거두어 들이는 일.

잘못 뽑아져 나온 것이든 너무 어려웠든지 간에 오해의 여지를 남긴 청사진은 말끔히 수거하고, 밝고 맑은 색조들이 아름답게 그 실상을 보이는 共感과 理解의 鳥瞰圖를 그려서 뚝뚝하게 내걸고 보여 주는 일이다.

民族文化의 價值觀定立을 위해 建築文化의 선진적 역할을 먼저 정리하고 참된 民族建築과 올바른 世界建築과의 조화와 통일작업을 한번 서둘러 보자.

그래서 그 빛나는 업적들이 도시와 주거와 생활 속에서 겨레의 찬사를 받고 문화의 대명사로 부각될 때 건

축인의 위치 또한 자랑스럽게 떠오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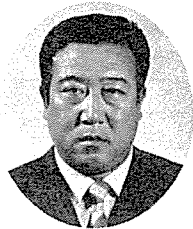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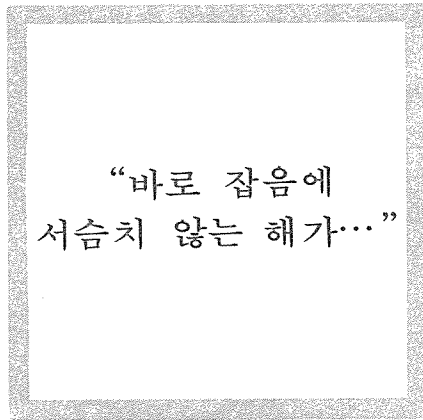
특히 영광과 축복의 갑자년을 더욱 뜻있게 장식할 건축인들 가운데서도, 미래의 건축문화를 주도할 건축사의

민족적 소명을 감안한다면 建築士憲章의 정신을 체계화하고 행동화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구축하는 이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속에서 생활 하여야 하며 결국은 겨레 속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는 것.

부디 새해 아침의 瑞雪과 함께 좋은 결과의 한해가 될 것을 믿는다.<*>



金 亨 仁 / 세한건축 · 본회이사

새해의 아침은 해마다 새로운 감회를 갖게 하지만, 우리 협회를 두고 올 한 해를 생각하노라면 그 깊이가 더욱 깊다.

돌이켜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예년의 그것처럼 多事하고 多難했던 것처럼, 앞질러 새해를 궁리하면 역시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 버려야 할 일들이 어렵푸시 가려지게 마련이다.

비단 협회의 일 뿐만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건축계의 甲子년도 속 뜻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한 개인의 생각만 그런게 아니고 여럿도, 단체도 같은 뜻을 세우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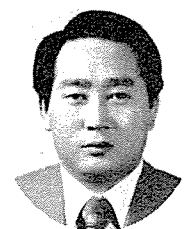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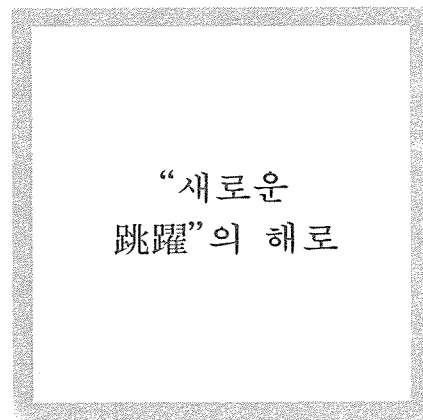
그중 하나 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해에 거는 기대는 오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힘씀」과 보다 큰 힘을 내는데 필요한 「도움」을 약속하며 순수한 개인의 뜻이 과연 넓게 퍼져 튼튼한 건축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새 회관을 짓는 협회가 새것 만큼 정신도 새로와져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우리 회원들의 모든 것이 좋게 새로와 졌으면 하는 기대 뿐이다.

지난 해(모든 지난 것)에 어려웠던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의 잘못에서 비롯 되었음을 안다면 그것을 하루속히 바로 잡는 슬기로움을 빨리 갖자.

過則勿憚改一. 그러노라면 또 한 해는 결코 헛되지 만은 아니한 해가 될 것이다.

부디 해마다 새해 아침에 갖는 신선한 감회 속에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 했으면 좋겠다.<*>



李 文 雨 / 韓國環境建築設計事務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甲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사업에 행운이 充滿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인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우리 협회도 어려운 일을 많이 처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旧會館 賣却処分과 새로운 회관 건립의 大役事가 이루어져 이제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 머리 속에 투영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 한 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차분히 마음의 정리를 하여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邁進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건축물의 많은 탄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 당 국민소득이 3,000\$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3,000\$에 육박하면 技術 優位의 시대, 많은 정보의 활용 시대, 각자 책임이 더욱

더 무거운 시대 등이 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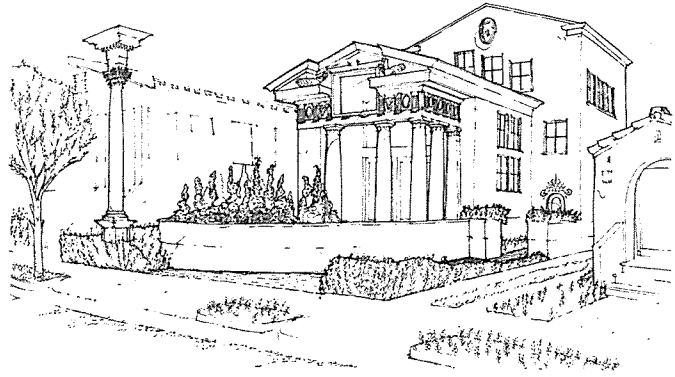
이에 대비하여 우리 建築士들은 더욱 더 자기의 충실과 주변의 충실은 물론 철학이 있는 삶을 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建築士들의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건축 문화도 단계적으로 영원하게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을 것으로 느껴 집니다.

또한 建築士 본인의 가치평가의 기준도 객관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建築士協會 또한 주변의 쓰러린 시련 속에서 성장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협회도 타율적,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구 및 운영 개선 등이 이루어져 각 분야별로 자율적, 능동적으로 일

을 찾아서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한 해의 건축계도 역사에 기록
되듯이 이제 이 한 해, 우리들의
역량과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여 아름답고 참된 공간을 만드는 새
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새해에 크게 기대하여 봅니다. <*>



“内実의 눈을
키워야 할 때”



金 基 雄 / 건축설계연구소 삼정

사회 변모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격하다. 生存을 위해서 판자집을 짓
던 때가 언제인데, 生活을 위해서
「집장사 집」이 유행하던 것이 언제인
데, 生産性을 위해서 工場 짓던 때가
언제인데, 벌써 문화적인 건축에 사
회는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재산을 평가하면 건
물 값이 大宗을 이루는데 지금까지
싸게, 빠르게 지어서 어서 쓰다 보니
까 이제는 몸은 커졌고 옷은 작아져
누더기 옷을 입은 꼴이 되어버렸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빨리 넘어가
다 보면 이 정도의 試行錯誤는 도리
가 없었다고 하는 見解도 있기는 하
나 간단히 벗어 내던지고 갈아 입을
의복도 아니고, 이 엄청난게 잘못 투
자된 일이 과연 불가피 했었나, 우리
건축계는 반성해야 할 단계에 와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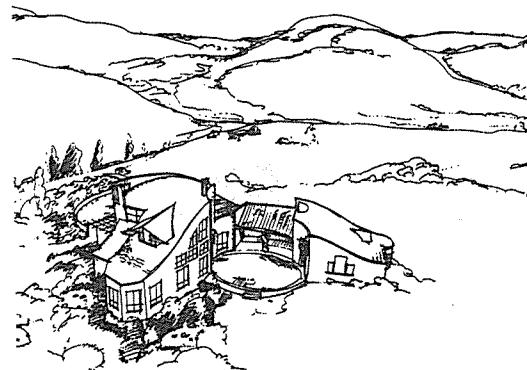
외국사람이 10년 걸려 짓던 것을 3
년만에 지어내고 工費를 반 이하로 절
감(?)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했었는
데, 일년 걸려 설계할 일을 3 개월에
해치우고, 하한선으로 정해졌던 설계
요율이 상한선으로 둔갑하다 못해 아
예 책에만 있는 숫자라고 체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에 기여했
다고 자위했었는데, 이제 사회는 하
루 아침에 「잘한다 잘했다」 소리를
거두고 경멸에 찬 눈초리로 건축계의
眼目없음을 나무라고 있다. 그래서 日
本사람, 美国사람, 아르헨 사람 建築
家들의 作品이 수도 서울의 하늘을
채우는 것을 사회는 당연시한다.

언제는 왜 설계비가 그리 비싸냐고,
언제는 건물에 왜 돈을 그리들여 낭
비하느냐고 하던 사람들이 안면을 바
꾸어 日本의 정교한 디테일을, 미국
의 스케일을, 독일의 과학을 들먹일
때, 우리라고 왜 할 말이 없어야 하

겠는가?

새장에 오래 갇혀 있던 새는 문을
열어 주면서 날라고 해도 금방 날지
는 못한다. 건축이 그 시대의 표현이
라고 해서 잘못된 시대를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너무 늦는 법은 없다. 이제
부터라도 건물 하나하나를 열심히 생
각해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건축 현장
에서 쉬지말고 다듬어서 훌륭한 건축
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건물 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外國의 경우처럼 아
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
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짓만 능사로
알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건물내
부만 다시 장식하면 얼마든지 용도가
다양해지며, 도시와 건물 자체가 관광
자원화되어 세계 사람들이 줄이어 방
문해야 될 것 아닌가? <*>



“하나의 調和를
생각하며…”



鄭 求 殷 / 삼예건축

분주했던 84년의 막바지에 해외 여행길에서 甲子年 새해의 소망을 빌어 본다. 어쩌면 84년 새해의 꿈의 실현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는 때 늦은 여행을 지금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 연일 겹치는 피로와 노느탈자 속에

서 조금 더 보고 배우겠다는 일념이 하루 일과를 재촉케 하고 있다.

집 떠나 외지에 있어 보아야 집사람의 고마움을 알 듯이 낯설은 異國의 거리에서 우리의 도시, 서울을 투영시켜 보니 우리의 지나 온 건축의 분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급격한 서구 문명의 홍수 속에서, 너나 할것 없이 조금이라도 뒤질세라 전통 문화를 파괴시키고 그 위에 세워 놓은 수 많은 모방의 작위들이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우리 도시가 또 언제쯤 우리의 옷으로 갈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이 한 걸음 더 다가 섰다. 그렇다고 세세한 준비도 없이 너무 허둥지둥 서둘러 또 그릇치지는 말자.

건축 수업 중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Style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 과정은 어떠 하였는가? 몇몇 거장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작품을 찬양하고 국전에서 상이나 타길 바라고... , 과장된 과시를 위한 과욕으로 오로지 하나의 작품만을 다루는 소심한 건축

가를 양성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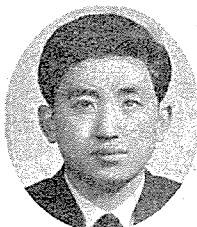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건물들 속에서 생활하고 호흡하는 시민들의 건물에 대한 관심이나 質이 낮다고 탓하는 우리가 잘못이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와서 도시 전체를 생각하자는 도시 설계 수법이 마련 되었다 당국이나, 건축가나, 시민들이나, 건축주까지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의욕에 차 있는 것 같다. 활력이 넘치고 인간적이고, 전통미가 유지되는 살기 좋은 도시란 아주 평범하면서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정신적인 자세부터 가다듬고 물질 만능의 생활 사조에서 벗어나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도로와 도로가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고, 건물과 건물들이 어색하지 않게 서로 어울리고, 건축주와 건축가가 서로 이해하고, 건축가와 행정가가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도시가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사 서로가 통하는 84년이 되었으면 한다.<*

“새 「建築」에 필요한
「名規」를…”



徐 千 植 / 합동사무소 삼일건축

建築士法이 발효된지 20년 동안 建築士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바도 컸고, 더러는 신뢰받지 못할만큼 업무에 충실치 못하다는 평판도 받아오면서 많이 발전했다고 자부해 본다. 역사학의 과학적 연구가 진전된 결과, 사회·문화의 발전은 절대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고 漸次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논증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개발 五個年 計劃을 5 차나 계속 추진해 오면서 建築의 역할은 분명 평가받을 만큼의 量的 作業은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아직도 전통문화의 現代化 接木이 정착하지 못했고 서양건축의 移植에 가까운 모방작이 많다고 해도, 뿌리 약한 現代韓國建築史를 감안해 본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키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적인 대행사를 치루기 위한 建築士의 자질도 충분히 향상되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에집트 국가가 나일강의 아스완댐을 건설해 놓고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담수 시간의 엄청난 차질을 가져 왔으며 비옥한 강 하류의 옥토가 없어져서 엄청난 비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중해의 염도마저 달라지는 등 댐건설이 전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고는 우리 建築界에서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느껴졌다. 都市計劃의 잦은 변경과 建築關係法令 조례 등의 변경·추가·改正·訂正 등은 아무리 觸角을 곤두세워도 明明白白하게 알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제하의 일본인이 우리 국토의 水力資源 調査를 14년간에 걸쳐 했다고 하며, 45년 전에 韓國建築 圖集이 발간되어 그 정확성에 공감을 하게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우리 建築家들은 BC 1세기 로마 시대의 大家이며 이론가인 Vitruvius先生

이 建築의 3대 기본요소는 Utilitas (=Utilities), Firmitas (=Construction), Venustas (=Aesthetic Effects)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교과서로 알고 正統的인 建물을 지어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바 건축관계 규정을 裁定하는 부서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로 급변하는 사회 생활에 따라, 건축행정을 선도하느라고 애로가 많았겠으나 새해 부터는 급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부분적인 시행으로 수정을 가하는 등 衆知를 수렴함으로써 오래 오래 公布의 効를 발하는 名規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建築士는 法令이나 조례 외에도 연구해야 할 분야와 수집해야 할 정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 더 훌륭한 建物の 창작을 위해 渾身の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慾心껏
일할 수 있는
與件造成 이뤄져야”



金 仁 喆 / (주) 엠·이건축연구소

해를 보내고 해를 맞는다는 것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바에는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신선한 감각과 경건해지는 마음가짐 같은 것은 우리의 작업에서는 해가 바뀌는 것과는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처 끝내지 못한 작업이 세모와 정초의 어수선했기 때문에 지지부진이 되어 짜증이 나고 제도판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번잡한 행사들에 끌려 다니다 보면 열두달 일년을 단위로 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 편할 것 같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프로젝트들은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복잡, 다양, 전문적인 것이 되면서 그 작업의 기간도 몇개월의 단위가 아닌 몇해를 계속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더구나 그 작업이 현장에 까지 연장되어지면 완공까지의 관련을 갖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한 작가의 경험에 중요한 단원을 만들기도 한다.

몇해를 거치는 작업에 파묻혀 시간

을 잊고 지내다 해가 바뀌는 분위기에 어수선했기 지면 그제서야 그동안의 작업을 다시 돌아 보게 되고 추스려 정리해 보게도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미흡하게 느껴지거나 불만스럽게 생각이 되어도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되어진 작업을 정리해 보는 것은 되어질 작업의 바탕으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그러하듯이 해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획도 하여야겠고 새삼스런 각오도 결드려야겠지만 부지런히 그리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다행이도 몇해 후의 큰일을 치루기 위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우리 전체가 향상이 되면 그 덕에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터이다.

트레싱 페이퍼와 연필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욕심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끌어 낼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

